EXCLUSIVE RIGHTS ANALYSIS · 손해보험협회 2026. 8. 21. 심의

항바이러스제·산전 확진검사 신담보 분석

현대해상 굿앤굿1540종합보험 ·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새로운 위험담보 2종

분석 대상 A	특정질병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 급여) · 굿앤굿1540종합보험
분석 대상 B	선별검사이상소견후융모막및양수검사지원비(최초1회한) ·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신청일	2026. 7. 14. (신청 구분: 새로운 위험담보 2종)
심의 결과	2종 각 배타적사용권 6개월 부여 (2026. 8. 21. ~ 2027. 2. 20.)
작성 기준일	2026. 11. 11.

본 보고서는 손해보험협회 공시 신청서·제안서·심의결과와 공개 통계·문헌을 근거로 작성한 내부 분석 자료다. 위험률 산출은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개념 수준으로만 기술한다.

EXECUTIVE SUMMARY

핵심 요약

현대해상은 두 개의 새로운 위험담보로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두 담보는 성격이 다르지만 진단이 아니라 의료행위(처방·확진검사)를 지급 트리거로 삼는다는 설계 원리를 공유한다.

- **A.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수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대상포진으로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특정바이러스질병」 보험금(예시 5만원), B형·C형 간염으로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간염」 보험금(예시 25만원)을 각각 연 1회 지급한다. 질병별로 흩어져 있던 진단 담보를 "약효군" 하나로 통합했다.
- **A의 구조적 특징**: 만성 B형간염 환자는 표면항원 소실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복약한다. 치료 중인 계약자는 해마다 확정적으로 보험금을 받으므로, 간염 급부는 확률적 보장보다 **연금형 확정 급부**에 가깝다. 위험률은 신규 발생보다 가입 집단의 치료 유병률, 즉 고지의무 이행 수준에 좌우된다.
- **B. 융모막·양수검사 지원비**: 임신 12주 이내 20~40세 여성이 가입하고, 출산 전 선별검사에서 태아 이상소견(O28)이 진단확정된 뒤 융모막검사나 양수검사를 받으면 최초 1회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선별검사 이상소견 진단비(최대 20만원)보다 한 단계 뒤의 확진 단계를 보장한다.
- **B의 구조적 특징**: 가입 가능 시점(임신 12주 이내)과 목덜미투명대 검사(11~13주)·비침습적 산전검사(10주 이후) 시점이 겹쳐 **역선택의 창**이 구조적으로 열려 있다.
- **인용 통계 점검**: 제안서의 B형간염 재발률 20~70%는 약을 중단했을 때의 수치로 연간 재청구율을 대리하지 못한다. 태아소실 위험 1.4%·1.9%도 총 소실률에 가깝고, 2019년 갱신 메타분석의 시술 관련 위험은 양수검사 0.30%, 융모막검사 0.20%다.
- **경쟁 환경 변화**: 삼성화재가 2026년 10월 신청한 특정약물치료비에 DAA C형간염 약물치료가 포함되어 있어, 본 담보 A의 간염 급부와 배타권 범위가 겹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PROPOSAL SUMMARY

제안 사항 요약

두 담보의 가치는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는 정액"에 있다. 제안은 담보별로 앞뒤 단계를 잇는 확장과, 예방·상담 서비스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프레임	제안	핵심 내용
확장	① 고위험군 호흡기 항바이러스제	영유아·고령·만성질환자의 인플루엔자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 보장 (A 확장)
확장	② 확진 이후 출생 전후 연계	염색체 이상 확진 시 유전상담·출생 후 조기중재 비용 지원 (B 확장)
집중	③ 만성간염 감시검사비	B·C형 간염 치료자의 간암 감시 초음파·혈액검사 연 2회 보장 (A 집중)
집중	④ 추가 유전검사비 보장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등 확진검사 부가 검사 비용 보전 (B 집중)
전환	⑤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물형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백신 접종을 현물로 제공해 발생 자체를 줄임 (A 전환)
전환	⑥ 산전 유전상담 결합형	이상소견 통보 즉시 유전상담 전문인력 연결 (B 전환)
재구성	⑦ 가족 감염 안심 패키지	영유아 수두·RSV, 부모 대상포진, 조부모 간염을 가족 단위로 묶음
재구성	⑧ 임신 여정 브랜드	산전검사·확진·출산·신생아 보장을 "출산 전 280일" 여정으로 재포장

추진 순서 추천

1. **1단계(배타기간 중)**: A 간염 급부의 고지 항목과 유병자 선별 절차를 강화하고, B 가입 시점 조건(검사 결과 통보 전 가입 확인)을 보완한다. 삼성화재 신청 건에 대한 배타권 범위 의견을 정리한다.
2. **2단계(배타기간 종료 전후)**: ⑤·⑥ 서비스 결합형과 ⑦·⑧ 패키지. 신규 위험률 부담이 작고 경쟁사 모방에 대한 방어선이 된다.
3. **3단계(경험 축적 후)**: ①·②·③·④. 처방·검사 통계와 자사 청구 경험을 확보한 뒤 출시한다.

SECTION 01

상품구조 해부

1.1 A. 특정질병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 급여)

항목	내용
세부 급부 ①	급여 특정바이러스질병 항바이러스제 보험금. 수두·RSV·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 목적으로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연 1회 (가입금액 예시 5만원)
세부 급부 ②	급여 간염 항바이러스제 보험금. 간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 목적으로 급여 간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연 1회 (예시 25만원)
대표 약제	대상포진·수두: 아시클로버·팜시클로버 등, RSV: 리바비린, B형간염: 엔테카비어 등, C형간염: 소포스부비르 등
검증 경과	보험개발원 검증(2026.2·3월), 금감원 신고수리(2026.4.13), 독립계리법인 검증(2026.6)
탑재 상품	굿앤굿1540종합보험

1.2 B. 선별검사이상소견후융모막및양수검사지원비(최초1회한)

항목	내용
가입 조건	20~40세 여성, 임신 12주 이내
지급사유	출산 전 선별검사 결과 태아 대상 「이상소견」(O28 산모의 출산 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이상소견을 토대로 「융모막검사」 또는 「양수검사」를 받은 경우
지급금액	특약 가입금액, 최대 70만원, 최초 1회
검사 정의	융모막검사: 초음파 유도하에 배 또는 자궁경부로 바늘·카테터를 넣어 태반 융모 조직을 채취·분석. 양수검사: 배를 통해 양수를 채취해 태아 세포를 분석
검증 경과	보험개발원 검증(2026.4), 제3보험 협의기구 의결(2026.4.24), 금감원 신고수리(2026.6.30)
탑재 상품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판매 2026.7.1)

1.3 두 담보의 공통 설계 원리

- **의료행위 트리거**: A는 처방, B는 침습적 확진검사를 지급 조건으로 삼는다. 진단만으로는 지급하지 않아 "치료가 실제로 시작된 사건"만 보장한다.
- **급여·코드 기반 객관성**: A는 급여 처방으로 한정하고, B는 O28 진단확정과 검사 시행을 함께 요구한다. 청구 심사가 서류로 끝난다.
- **빈도 구조의 차이**: A는 연 1회 반복(만성 간염은 매년), B는 생애 최초 1회다. A는 유병률, B는 발생률이 위험률을 지배한다.

SECTION 02

국내외 유사 상품 조사

2.1 국내 유사 상품

구분	대표 담보	주요 보장	본 담보와의 차이
A 보장 유사	대상포진·수두·RSV·간염 진단비 (생·손보 다수)	질병별 진단확정 시 정액	질병마다 따로 가입. 처방 여부와 무관
A 지급방식 유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 약제 처방 담보	특정 약제 처방·투여 시 정액	처방 트리거의 선례. 항바이러스 약효군 적용은 처음
B 보장 유사	출산전 선별검사 이상소견 진단비	O28 진단 시 정액 (최대 20만원 수준)	진단 단계만 보장. 확진검사 비용은 공백
B 지급방식 유사	암 유전자패널 검사비, 착상 관련 검사비 등 비급여 검사비 담보	특정 검사 시행 시 정액	검사 트리거 선례. 산전 확진검사 적용은 처음

신규성은 트리거 형식 자체가 아니라 **"항바이러스 약효군"과 "산전 확진검사"라는 대상 선택과 조합**에 있다. 심의위원회도 이 조합의 독창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2 일본 유사 상품

- **A 관련**: 일본 의료보험은 입원·수술 급부 중심이다. 대상포진은 통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통원 특약이 없으면 급부가 생기지 않는다. 약제 처방 트리거는 항암제 치료 특약 정도에만 있다. 대상포진 백신은 2025년도부터 65세 기준 정기접종에 들어가 공적 예방이 발생을 흡수하는 방향이다.
- **B 관련**: 일본도 산전 유전검사는 공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비 진료다. 대신 비침습적 산전검사를 제공한 기관이 양성 결과가 나오면 확진검사 비용을 자체 보조하는 관행이 있다. 보험이 아니라 **검사 공급자가 위험을 내부화**하는 방식이다.
- **시사점**: A는 예방접종과 결합할 때(제안 ⑤) 일본처럼 발생률을 낮추면서 고객 편익을 유지할 수 있다. B는 공급자 보조 모델을 참고해 검사기관 제휴형으로 확장하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SECTION 03

의학적 해석

3.1 A. 항바이러스제 대상 질환

질환	질환과 치료 (쉬운 설명)	보험 관점
대상포진	몸에 숨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이 떨어질 때 다시 활성화된다. 발진 후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7일 정도 복용한다	50대 이후 발생이 많고 재발도 가능. 연 1회 정액
수두	영유아·소아의 급성 감염. 고위험군이나 중증일 때 항바이러스제를 쓴다	법정 감염병 격리로 돌봄 공백 발생
RSV	영유아 세기관지염·폐렴의 주요 원인. 항바이러스제 사용은 제한적이다	처방 빈도가 낮아 급부 기여는 작음
B형간염	만성 감염자는 간경변·간암 위험이 높다. 학회 지침상 항바이러스제를 장기간, 대부분 평생 복용한다	치료 중이면 매년 지급사유 발생
C형간염	8~12주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DAA)로 95% 이상 완치된다	치료 기간이 짧아 1회성에 가까움

인용 통계의 정의 문제: 제안서는 B형간염 재발률 20~70%를 근거로 반복 지급을 설명했지만, 이 수치는 **항바이러스제를 중단한 뒤**의 바이러스학적 재발률이다. 지침은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하므로 실제 연간 재청구를 만드는 것은 재발이 아니라 **처방 지속**이다. 간염 감염자 상당수가 증상이 없고,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을 통보받고도 확진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도 "정보를 가진 미진단 집단"이 시장에 존재함을 뜻한다.

3.2 B. 산전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단계	내용
선별검사	목덜미투명대 초음파(11~13주), 모체 혈청 검사(쿼드 등), 비침습적 산전검사(혈중 태아 DNA, 10주 이후). 고위험군을 골라내는 검사이며 확진은 아님
이상소견 진단	선별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O28로 진단
확진검사	융모막검사(10~13주) 또는 양수검사(15주 이후). 태아 세포의 염색체를 직접 확인한다. 산모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발견 시기가 검사 종류를 결정한다
비용	6개 주요 병원 평균 융모막검사 103.6만원, 양수검사 99.7만원.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를 함께 하면 총액 162.5만원으로 최대 지급액 대비 보전율이 약 43%로 내려간다

- **시술 위험의 최신 근거**: 제안서가 인용한 태아소실 1.4%·1.9%는 총 소실률에 가깝다. 2019년 갱신 메타분석(Ultrasound in Obstetrics & Gynecology)의 시술 관련 위험은 양수검사 0.30%, 융모막검사 0.20%이며, 위험 특성이 같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 **시술 위험이 낮게 알려질수록 확진검사 시행률은 올라간다.**

- **모집단 변화**: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서 출생아는 25만 4,500명으로 6.8% 늘었고, 평균 출산연령 33.8세, 35세 이상 산모 비중 37.3%로 역대 최고였다. 산모 연령이 높을수록 이상소견 확률이 커지므로 모집단과 위험이 함께 커졌다.

SECTION 04

위험률 산출 개념

A: $q_x = q_{\text{진단},x} \times u_{\text{급여처방},x}$ | **B:** $q_x = q_{\text{이상소견},x} \times u_{\text{확진검사시행},x}$

A의 간염 급부는 신규 진단보다 치료 지속 유병률이 지배하므로 $q_{\text{진단}}$ 대신 연간 처방 유병률로 보는 것이 실태에 가깝다

B는 연 단위가 아닌 임신 1건당 확률이며, 연령 축은 가입 시점의 산모 연령이다

- **위험 형태**: A는 연간 베르누이형(간염은 사실상 반복 확정형), B는 최초 1회 확률형이다.
- **데이터원**: A는 급여 처방 자료(③계층)로 직접 관측 가능하다. B의 확진검사는 비급여라 청구 자료에 없고 병원 임상데이터·한국 OHDSI 등 ④계층에 의존해야 한다.
- **불확실성**: A는 가입자 집단의 간염 유병률이 고지 이행에 좌우되고, B는 담보 존재 자체가 확진검사 시행률을 끌어올린다. 두 값 모두 일반 인구 통계보다 가입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SECTION 05

리스크 진단

축	리스크	대응 방안
역선택	A: 간염 보유를 알거나 의심하는 사람의 가입. B: 선별검사 결과를 알고 난 뒤 12주 이내 가입	A: 간염 검사 이력·항원 보유 고지 강화, 간염 급부 1년 감액. B: 가입 시 선별검사 시행 여부 고지,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검사 결과 제외
모럴해저드	A: 대상포진 경증에도 처방 요구. B: 경계 수치에서 확진검사 선택 증가	A: 연 1회·소액 구조 유지. B: 이상소견 진단 기준을 학회 권고 수치로 한정
공급자 유인	B: 확진검사가 비급여라 병원이 가격과 시행을 정함. 마이크로어레이 등 부가 검사 권유	지급액을 정액 상한으로 고정, 검사기관 제휴로 가격 안정화
재보험	A 간염 급부의 반복 확정성으로 손해율 안정성은 높으나 유병률 가정 오류에 민감	간염 급부 별도 경험 관리, 비례재보험
규제	A: C형간염 DAA를 포함한 타사 신청과의 배타권 범위 중첩. B: 산전검사 급여화 시 담보 의미 축소	배타권 범위 의견 제출, 급여화 시 지급 기준 전환 조항
데이터	B 확진검사 시행률은 공개 통계 부재	병원 제휴 자료 확보, 출시 후 3년 경험으로 재산출

종합 판단: 두 담보 모두 개인 단위 사기 위험은 낮다. 실질 위험은 **A의 유병자 유입과 B의 가입 시점 역선택**이라는 정보 비대칭이다. 둘 다 상품 구조가 아니라 고지·가입 절차로 막아야 하므로 언더라이팅 운영이 손해율을 결정한다.

SECTION 06

경쟁사 대응 시나리오

장벽	수준	판단 근거
데이터 장벽	A 낮음 · B 중간	A는 급여 처방 통계가 공개되어 있고, B는 비급여 확진검사 자료 확보가 필요
제휴 장벽	없음	두 담보 모두 외부 제휴 없이 운영
시스템 장벽	낮음	기존 처방·검사 담보 심사 체계 재사용

- **카피 경로**: 배타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이후 어린이보험 경쟁이 치열한 손보사(메리츠·DB·KB 등)의 B 담보 모방이 예상된다. A는 개별 질환을 하나씩 떼어 "대상포진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처럼 쪼개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
- **타사 신청과의 경계**: 삼성화재가 2026년 10월 22일 신청한 「특정 간·폐·신장질환 특정약물치료비」에는 DAA C형간염 약물치료가 들어 있다. 질병 진단확정 후 항바이러스 약제를 처방받으면 지급한다는 점에서 A의 간염 급부와 위험 구조가 겹친다. 배타권 범위에 대한 의견을 협회에 제출할 실익이 있다.
- **차단 전략**: 예방접종·유전상담 같은 서비스 결합(제안 ⑤·⑥)으로 단순 정액 담보와의 차별성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SECTION 07

상품개선 제안

원상품 가치 해체

- **핵심 기능**: A는 바이러스 질환 치료가 시작되는 처방 시점을, B는 태아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확진 검사 시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 **고객 Pain Point**: A는 질병마다 따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만성 간염의 반복 비용, B는 비급여 확진검사의 높은 비용과 결정 순간의 불안이다.
- **제공 가치**: 치료와 검사를 망설이지 않게 해 질병 진행과 정보 공백을 줄인다.

① 확장 · EXPAND

① 고위험군 호흡기 항바이러스제

인플루엔자는 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에게 급여 항바이러스제가 쓰인다. 고위험군으로 한정해 A의 약효군을 넓힌다.

1. **담보 정의**: 급여 기준을 충족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처방(고위험군 기준)
2. **보장 방법**: 연 1회 정액
3. **보장금액 제안**: 3만~5만원
4. **대상 고객**: 영유아 자녀, 65세 이상 부모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급여 인정 기준 자체를 고위험군 필터로 쓴 데 있고, 진보성은 계절성 감염까지 약효군 보장을 넓힌 데 있다. 유용성은 유행기 진료비와 돌봄 공백을 덜어 주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유행 규모에 따른 손해율 변동이 크므로 소액·연 1회와 갱신형으로 관리한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상 (급여 처방 통계) · 구조 △ (유행 집적 위험)

② 확진 이후 출생 전후 연계

확진검사에서 염색체 이상이 확인되면 가족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출생 후에는 조기중재가 필요하다. B 이후 단계를 잇는다.

1. **담보 정의**: 확진검사 결과 염색체 이상 확진 시 유전상담비, 출생 후 3년간 조기중재 치료비
2. **보장 방법**: 상담 1회 정액, 조기중재 연 1회
3. **보장금액 제안**: 상담 30만원, 조기중재 연 100만원
4. **대상 고객**: B 담보 가입자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산전 확진과 출생 후 중재를 한 여정으로 묶은 데 있고, 진보성은 검사비 지원을 이후 의사결정 지원으로 넓힌 데 있다. 유용성은 가족의 정보·비용 부담을 함께 덜어 주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선천이상 보장 범위와 태아 가입 조건의 중복은 약관상 우선순위로 정리한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하 (확진 후 경로 자료 부족, 탐색 단계) · 구조 ◯

② 집중 · FOCUS

③ 만성간염 감시검사비

B·C형 간염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암 조기 발견이다. 항바이러스제 처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시검사를 보장한다.

1. **담보 정의**: 간염 진단자가 간 초음파와 종양표지자 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2. **보장 방법**: 연 2회 한도 정액
3. **보장금액 제안**: 회당 5만원
4. **대상 고객**: A 간염 급부 대상자, 40세 이상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치료 담보에 감시검사를 결합한 데 있고, 진보성은 간암 조기 발견이라는 2차 예방을 보험 급부로 만든 데 있다. 유용성은 고위험군의 검진 순응도를 높이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반복 확정 지급이 되므로 가입금액을 소액으로 두고, 간암 진단비 손해율 개선 효과로 상쇄를 검증한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상 · 구조 ◯

④ 추가 유전검사비 보장

마이크로어레이를 병행하면 총액이 162.5만원으로 늘어 보전율이 43%로 떨어진다. 고비용 부가 검사에 보장을 집중한다.

1. **담보 정의**: 확진검사와 함께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등 지정 유전검사를 시행한 경우
2. **보장 방법**: 최초 1회 정액, B와 별도
3. **보장금액 제안**: 50만원
4. **대상 고객**: 35세 이상 산모, B 가입자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확진검사의 부가 유전검사를 독립 위험으로 정의한 데 있고, 진보성은 보전율 공백을 직접 메운 데 있다. 유용성은 정밀 검사를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부가 검사 권유가 늘 수 있으므로 의학적 적응증(초음파 이상 소견 동반 등) 요건을 둔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중 · 구조 ◯

③ 전환 · TRANSFORM

⑤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물형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은 효과가 높지만 비싸다.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접종을 현물로 제공해 발생 자체를 줄인다.

1. **담보 정의**: 가입 1년 경과 후 대상포진 백신 접종 시 접종비 지원 또는 제휴 의료기관 현물 제공
2. **보장 방법**: 생애 1회(2회 접종 일정)
3. **보장금액 제안**: 접종비 실비 한도 30만원
4. **대상 고객**: 50~64세(국가 정기접종 이전 연령)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치료 담보를 예방 현물로 바꾼 데 있고, 진보성은 지급과 발생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다. 유용성은 고객이 고통스러운 신경통 합병증을 피하게 돕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국가 접종 확대 시 중복은 공적 접종 대상 제외 조항으로 정리한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상 (접종 효과 문헌) · 구조 ◯

⑥ 산전 유전상담 결합형

이상소견 통보 직후 산모는 확진검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유전상담 전문인력 연결을 보험 서비스로 붙인다.

1. **담보 정의**: O28 진단 시 유전상담 서비스 이용권 제공
2. **보장 방법**: 원격 또는 대면 상담 1회, 확진 결과 설명 상담 1회
3. **보장금액 제안**: 서비스 원가 10만원 상당
4. **대상 고객**: B 가입자 전원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검사비 보장에 의사결정 지원을 결합한 데 있고, 진보성은 보험이 산전 정보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맡는 데 있다. 유용성은 불필요한 검사와 불안을 함께 줄이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상담이 검사 권유로 변질되지 않도록 중립 상담 원칙을 제휴 계약에 명시한다.

게이트: 신규성 ◯ · 데이터 하 (서비스 효과 자료 부족, 탐색 단계) · 구조 ◯

④ 재구성 · REFRAME

⑦ 가족 감염 안심 패키지

회사가 제시한 생애주기 메시지(영유아 주춧돌, 소득 창출기, 은퇴기 안전망)를 가족 단위 상품으로 구체화한다.

1. **담보 정의**: 가족 구성원별 A 담보 + 제안 ①·⑤ 묶음
2. **보장 방법**: 가족 계약 1건, 피보험자별 연 1회
3. **보장금액 제안**: 가족 월 보험료 1만원대
4. **대상 고객**: 3세대 가족, 맞벌이 부부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감염 위험을 가족 전파 관점으로 묶은 데 있고, 진보성은 세대별 바이러스 위험을 한 계약에 담은 데 있다. 유용성은 가족 단위 보장 관리를 단순화하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가족 내 동시 감염 집적은 가족 단위 연간 한도로 관리한다.

게이트: 신규성 △ (조합형) · 데이터 상 · 구조 ◯

⑧ 임신 여정 브랜드

B 담보를 단일 특약이 아닌 "출산 전 280일" 여정 상품의 핵심 장면으로 재포장한다.

1. **담보 정의**: 산전 선별검사 이상소견 진단비 + B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 + 신생아 보장
2. **보장 방법**: 임신 확인 시 가입, 출생 후 어린이보험 자동 연계
3. **보장금액 제안**: 기존 담보 조합, 패키지 할인
4. **대상 고객**: 35세 이상 예비 산모, 난임 시술 후 임신 고객
5. **차별화 포인트**: 독창성은 임신 기간 전체를 하나의 위험 여정으로 설계한 데 있고, 진보성은 태아보험의 진단 중심 구성을 검사·결정 단계까지 넓힌 데 있다. 유용성은 산모가 시기별 보장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있다.
6. **위험요소**: 난임 시술 후 고위험 임신의 역선택은 시술 이력 고지와 별도 요율로 관리한다.

게이트: 신규성 △ (조합형, 브랜드 선점) · 데이터 상 · 구조 ◯

SECTION 08

부록·참고자료

공시·회사 자료

1. 손해보험협회, 현대해상 배타적사용권 신청서(2026.7.14) 및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신청 제안서
2.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시(2026.8.21)

보도·통계

1. 아시아경제, 현대해상 신담보 2종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보도(2026.8.25)
2. 통계청,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3. 삼성화재, 특정 간·폐·신장질환 특정약물치료비 배타적사용권 신청서(2026.10.22)

의학 문헌·지침

1. Salomon LJ et al., Risk of miscarriage following amniocentesis or chorionic villus sampling: updated meta-analysis, Ultrasound Obstet Gynecol(2019)
2.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3. 일본 후생노동성, 대상포진 백신 정기접종(2025년도 시행)

한국 데이터 인프라

1.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 통계(항바이러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2. ④ 병원 CDW, 한국 OHDSI 컨소시엄(비급여 확진검사 시행률)